

중심 메시지: 기독교인의 삶은 ‘중생’과 ‘하나님의 나라’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다. 중생은 개인적 변화를,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변혁을 의미한다.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영성 (politically engaged spirituality) 을 갖는 것을 말한다.

그 동안의 문제들: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개인적 변화만 강조하고,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열정이 무시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.

1. 기독교는 지배문화의 종교 -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 대신 내세 (afterlife)에서의 개인 구원이 일차적인 메시지가 됨
2. 하나님의 정의 (God’s justice) 에 대한 오해 ;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가 하나님의 자비 (God’s emrcy) 로 착각, 성서의 정의를 왜곡함. 하나님의 정의의 반대는 인간의 불의 (human injustice)
3. 개인주의에 지배되는 문화 - 하나님의 선물로 자유를 강조, 성공과 행복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이해, 사회체제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게 만들.

성서에 나타난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열정: 제국들의 체제적 불의¹⁾ (systemic injustice)에 저항하는 모습

히브리 성서: 고대의 지배체제²⁾에 대한 저항 (모세와 출애굽 사건, 바빌론 포로, 이스라엘과 유다왕국의 예언자들의 목소리)

신약성서: 하나님의 나라 (왕국, kingdom of God)

1. 의미

- 예수의 사역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, 또는 하나님의 현존
- 공동체, 역사 끝에 올 나라
- 종교,정치적인 (신학, 정치적인) 은유 : 왕국 (Kingdom), 현실적인 정치적 실체,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, 지배계층이 통치하던 고대의 지배체제에 대조되는 개념
- 마태 - 하늘나라, 내세에 대한 가르침으로 변질..?

2.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 : 농민들의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에 관심 (빵과 빛)

3. 팔복의 하나님 나라 : 예수가 꾸었던 하나님의 꿈, 절박한 현실 앞에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함

4. 예수가 주님인 곳 (Jesus is Lord): 초기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고백, 로마³⁾ 황제가 주님이라는 것을 부인함, 제국의 주권에 도전

5.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

- 십자가: 지배체제가 예수에 대해 No 한 것
- 부활: 하나님이 예수와 그의 비전에 대해 Yes, 지배체제에 No
- 십자가는 개인적인 변화의 길, 곧 주와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나는 길을 구체화한 것이며, 세상의 지배체제를 고발한 정치적 의미

우리 시대를 위한 의미들 - 잘못된 체제에서 당하는 인간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열정을 살아내는 것

- 교회 안에서의 의식화 작업: 불의한 사회체제 (통치체제(법과 절차), 경제체제, 신념과 태도에 대한 인습체제) 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 것
-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함: 가장 작은 자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, 진보적 정치, 함께 아파하는 정치. 하나님 나라의 정치

생각해 볼 문제

- 중생의 정치적 의미: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보고,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할 것인가?
- 우리는 이미 일차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아닐까? 우리도 저자가 이야기한 “마법에서 풀려난 사람들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?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?

1) 체제적 불의란? - 정치, 경제, 인습 등 인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회 억압적인 요인들 (노예제도, 인종차별, 성차별 주의 등)
 2) 고대의 지배체제: 정치적으로 억압적 (특권계급), 경제적으로 착취(부의 불균형), 종교적으로 정당화 됨 (권력과 법률은 신으로부터, 왕권의 의식 royal consciousness)
 3) 제국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인식 : 요한 계시록에 기술,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, 큰 창녀, 로마 (아크로스타크, 탐욕)